

삼바 축구 만나는 벤투호... 오늘밤 초고난도 모의고사

UAE서 10시30분 브라질과 대결
제주스·윌리앙 등 초호화군단
몸값 1조1400억원...한국팀의 7배
네이마르는 부상으로 결장

손흥민·황희찬 돌파력 기대
김민재·김영권 센터백 조합
글로벌 경쟁력 확인할 시험대

벤투호가 '완전체'로 맞는 올해 마지막 평가전에서 '남미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초고난도 모의고사를 치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9일 오후 10시 30분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 맞대결한다.

브라질은 자타공인 최강의 팀이다. 역대 상대 전적(1승 4패)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브라질 3위·한국 39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력의 격차는 크다.

게다가 브라질은 지난 6월 열린 2019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에서 우승한 뒤 5경기 연속 무승(3무 2패)의 부진에 빠져있어 잔뜩 욕이 올라 있다.

◇피르미누·쿠티뉴... '몸값 7배' 초호화 군단
유망주를 화수분처럼 배출해내는 브라질 축구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삼바 군단' 선수들은 그 몸값도 천문학적 수준이다.

선수 이적 소식과 추정 이적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 대표선수들의 몸값 총액은 무려 8억84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조1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벤투호 선수들의 총 몸값 1억3500만 유로(약 1700억원)의 약 7배에 달한다.

'슈퍼스타' 네이마르(PSG)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만능형 공격수 호베르투 피르미누(리버풀)를 비롯해 가브리엘루 제주스(맨체스터시티), 윌리앙 시우바(첼시), 필리페 쿠티뉴(바이에른 뮌헨) 등 핵심 자원이 즐비하다.

◇'무실점 행진' 벤투호 수비, 얼마나 버틸까
벤투호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한 번도 실점하지 않았다. 상대가 비록 강팀은 아니었지만 총 4경기 중 3



브라질과의 친선경기를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의 황희찬 등 선수들이 16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크리켓 스타디움에서 볼 빼앗기 게임을 하며 좁은 공간 패스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를 원점으로 치렀다는 점에서 무실점 행진은 분명 고무적인 성과다. 많은 비판을 받는 공격 전개 능력과 골 결정력 등과는 별개로, 수비조직력만큼은 안정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브라질은 격이 다른 팀이다. 벤투호 수비의 '글로벌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스파링 상대다.

한국 축구 사상 최고의 수비수가 될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장신 수비수 김민재(베이징 궈안)와 영리한 김영권(감바 오사카)의 센터백 조합이 브라질의 초호화 공격진을 상대로도 제 몫을 해낼지 주목된다.

◇강팀에 강한 태극전사들... 이번에도 일발까
한국도 브라질만큼이나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

다. 북한전에 이어 레바논전에서도 답답한 경기 끝에 무득점 무승부에 그쳐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브라질에 승리한다면 한 번에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지만, 절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승리는 벌써 20년 전 일(1999년 1-0 승)이고, 브라질을 상대로 마지막 으로 골 맛을 본 지도 17년(2002년 2-3 패)이나

지났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은 느닷없이 강팀을 겨우러뜨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곤 한다.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이 이번에도 벤투호의 공격을 이끌 전망이다.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 경기에서 '디펜딩챔피언'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터뜨린 황희찬(잘츠부르크)의 '황소' 돌파도 기대된다. /연합뉴스

21세 치치파스 '테니스 왕중왕'

니토 ATP 파이널스 남자 단식 결승 도미니크 팀에 2-1 역전

스테파노스 차치파스(6위·그리스)가 남자프로테니스(ATP) 2019시즌 마지막 대회인 니토 ATP 파이널스(총상금 900만달러) 정상에 올랐다.

차치파스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도미니크 팀(5위·오스트리아)에게 2-1(6-7(6-8) 6-2 7-6(7-4)) 역전승을 거뒀다.

1998년생 차치파스는 2001년 20세 나이로 이 대회 패권을 차지한 레이튼 휴잇(호주) 이후 18년 만에 이 대회 최연소 챔피언이 됐다. 우승 상금은 265만6000달러(약 31억원)다.

이 대회는 한 해에 좋은 성적을 올린 상위 랭커 8명만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으로 현재 세계 랭킹 1, 2위인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는 모두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다.



도 페더라는 전날 4강에서 치치파스에 패했다. 팀은 조별 리그에서 페더라, 조코비치를 연파했거나 결승에서 치치파스에 탈미를 잡았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25~27일 프로 선수단 공개테스트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가 공정한 시스템 정착과 숨은 인재 발굴을 위해 프로 선수단 공개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번 공개 테스트는 고졸 예정자 또는 중·고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 선수,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예정자, K3·내셔널리그·K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 2019년 대한축구협회나 한국프로축구연맹 주관 경기 출전기록이 있는 선수, 대한축구협회나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 해외 프로 구단 경기 출전기록이 있는

선수(2019년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 테스트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광양시 금호동 소재 프로 연습구장에서 이루어진다.

신청 접수는 21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홈페이지(www.dragons.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hoonjay93@dragons.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구단 사무실(선수운영팀 061-815-0126)로 문의하면 된다. 서류 합격자는 22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발표된다. /김여울 기자 wool@

양현종, 패전에도 빛난 존재감

프리미어 12 결승 일본전 3-5 패...강팀과 3경기 2승 1패 최다이닝 소화

패전 투수가 됐지만 투혼을 다한 '에이스' 양현종(KIA)이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지난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전에서 일본에 3-5로 패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초대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한국의 대회 2연패는 무산됐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은 대만(5위)·호주(6위)에 앞선 2위의 성적을 내면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1장)에 걸려있던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안고 귀국했다. 또 준우승 상금 75만 달러(약 8억 7300만원)도 가져왔다.

16일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에 8-10으로 졌던 한국은 대회 17일 이를 연속 전개된 '한일전' 이자 대회 결승전은 정예멤버로 나섰다.

출발은 좋았다. 1회부터 김하성(키움)과 김현수(LG)가 일본 선발 야마구치를 상대로 나란히 담장을 넘기면서 3-0으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하지만 결승전을 책임진 양현종의 어깨가 무거웠다.

1회말 2사 1루에서 스즈키 세이야에 1타점 2루타를 맞은 양현종이 2회에는 투아웃 이후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했다. 키쿠치 료스케의 타구가 3루수 앞에서 크게 바운드되면서 2사 1·2루. 이어 타석에서 선 야마다 데츠토가 투볼 투스트라이크에서 3개의 파울을 견어낸 뒤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3-4로 경기가 뒤집혔다.

이후 한국은 일본 철벽 계투진에 끔뎀 뚫리며 대회 2연패를 이루지 못했다. 양현종은 3이닝 4피안타(1피홈런) 3볼넷, 4탈삼진, 4실점의 아쉬운 패전 투수가 됐다.

3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지만 양현종은 '태극마크'의 자부심으로 대표팀의 중심에 서며 도쿄올림픽 픽행과 준우승을 이끌었다.

양현종은 예선과 슈퍼라운드 첫 경기에 출격해 승리로 스타트를 끊어줬다.

호주와의 C조 예선 첫 경기는 6이닝을 1피안타로 틀어막고, 10개의 탈삼진까지 뽑아냈다. 양현종의 호투로 기본 좋게 대회 첫승을 장식한 한국은 3연승과 함께 C조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슈퍼라운드 첫 경기 미국전도 양현종이 책임졌다. 양현종은 10안타를 허용했지만,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하면서 5.2이닝 1실점으로 대회 두 번째 승리를 챙겼다. 한국이 이어진 슈퍼라운드 2차전 대만전에서 예상과 달리 0-7 대패를 당했던 만큼, 미국전 1승은 한국에 귀한 승리가 됐다.

팀의 4연승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던 양현종은 가장 큰 결승전 무대에서는 웃지 못했다.

KIA의 에이스로 묵묵히 역할을 하며 '반전의 시즌'을 연출한 양현종은 시즌 마지막 등판 뒤 "시즌 끝나고 프리미어라는 중요한 경기가 있으니 잘 준비하겠다"며 국가대표로서의 목표와 각오를 이야기했다.

몸이 재산인 팀의 핵심 선수이자, 병역 혜택도 의미가 없는 양현종에게 국가대표는 '질해야 본전'인 자리다. 하지만 태극마크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을 이야기하며 양현종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끝냈다. 양현종은 3경기서 14.2이닝을 소화하면서 이번 대회 전체 참가 선수 중 가장 많은 이닝도 책임졌다. 아쉬운 패배에도 양현종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